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배포일자 2023년 6월 28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국제협력과	담 당 자	• 중국교류팀장 • 담당자	김은진 ☎440-3231 유혜진 ☎440-324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 세계경제포럼 총재 만나 지방정부 교류 협력 강조
 - 유 시장 “국가 간 긴장상태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해야” -
 -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인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밝혀 -

유정복 인천시장이 뢰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를 만나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는 중국 텐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28일 뢰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렌데 총재는 “인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며, 유정복 시장께서 매우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했고,

이에 유 시장은 “인천에 최근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서 300만 인천인구에 더해 세계 193개국에 거주하는 75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1000만 도시가 됐다”며 인천의 위상을 알렸다.

현재 한·일, 한·중 관계에 대한 브렌데 총재의 질문에 유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고, 경제와 안보에 있어 한·일, 한·미·일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중 관계가 불편해 보일 수 있으나 한국과 중국 역시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문과 관련해 유 시장은 “중앙정부 간 관계가 어색해져도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면, 국가 간 관계 개선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국가 간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여도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지속해 나가야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렌데 총재는 “국가 간 관계를 떠나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발전한 한국은 모든 국가에 매력적인 국가”라고 말한 데 대해,

유 시장은 “지난 50년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국가임이 분명하고,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디지털전환, 첨단미래산업이 고도로 발달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브렌데 총재께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인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인천이 세계경제포럼(WEF) 미래항공모빌리티-도심항공교통(AAM-UAM) 분과에 참여하고 있으니, 11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K-UAM confex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관련사진>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8일 중국 텐진시 메이장컨벤션센터에서 WEF 뷔르게 브렌데 총재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